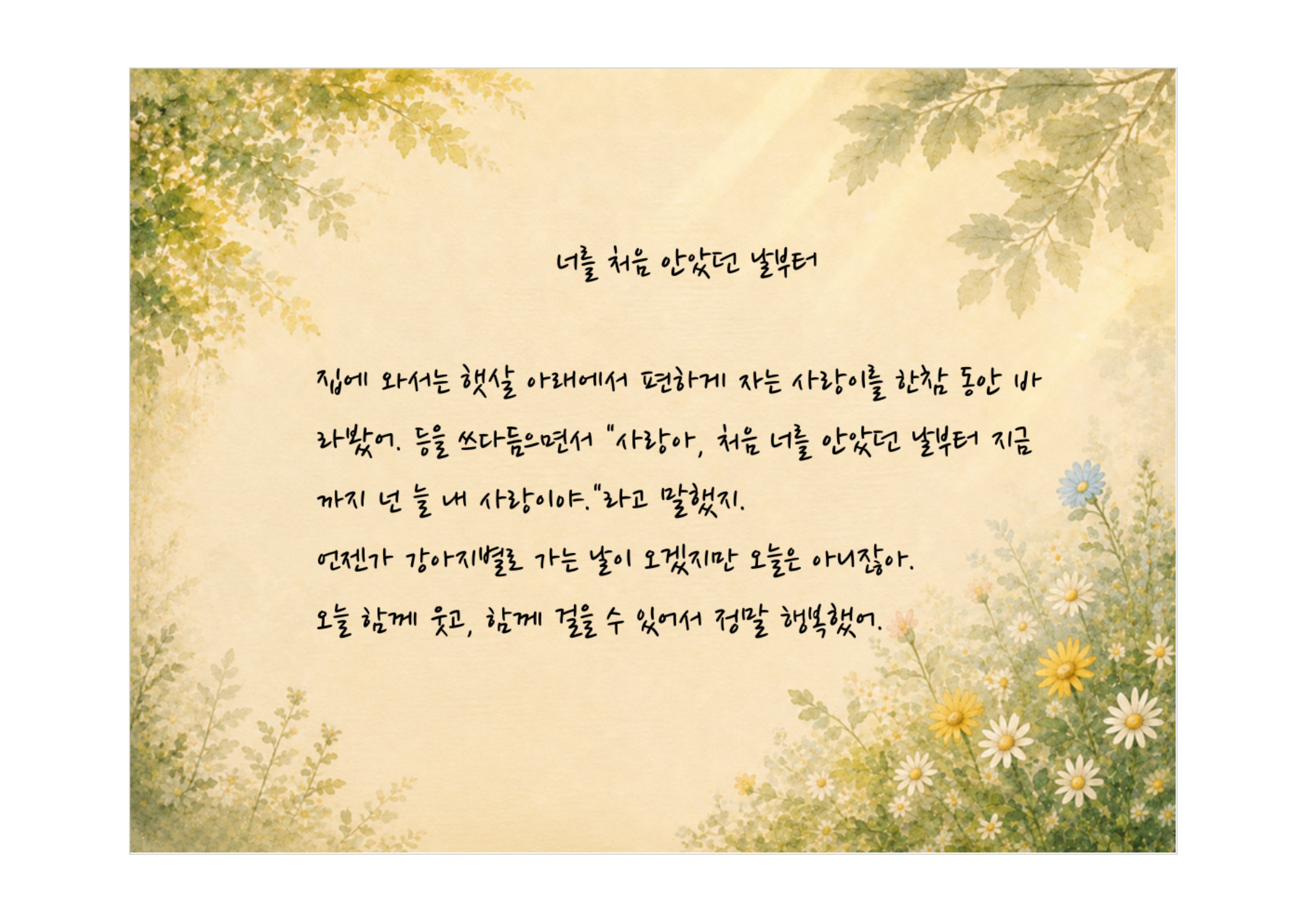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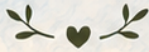


너를 처음 안았던 날부터

집에 와서는 햇살 아래에서 편하게 자는 사랑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. 등을 쓰다듬으면서 "사랑아, 처음 너를 안았던 날부터 지금까지 넌 늘 내 사랑이야."라고 말했지.

언젠가 강아지별로 가는 날이 오겠지만 오늘은 아니잖아.

오늘 함께 웃고,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.



처음 품에 안았던 작은 강아지 사랑이.
시간이 흘러 느려진 걸음 앞에서
유찬은 함께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배웁니다.

이 책은 기다림, 사랑, 그리고 오늘을 소중히 안는
가족의 따뜻한 시간을 담은 이야기입니다.



조금 느려도 괜찮아, 함께라서 좋아.

